

수도원에 들어간 제자도, 사회적 영성의 퇴거인가?*

- 베네딕투스를 중심으로

문시영 (남서울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말

II. 수도원에 들어간 제자도, 사회적 영성의 퇴거인가?

1. 매킨타이어를 응용한 베네딕투스 다시 읽기
2. 사회적 영성의 퇴거인가?

II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4.58.08>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1042172).

• ABSTRACT •

St. Benedict on Discipleship and Social Spirituality:

A study on the ethics of ‘being disciple’

Moon, Si-Young, Ph. D. (Professor of Christian Ethics, Namseoul University)

‘Does the discipleship went to the monastery lead to a withdrawal of social spirituality?’ Benedict, read by applying MacIntyre’s waiting for ‘another Benedict,’ is an important sample of ‘monastic discipleship’ which sought to being disciple in times of crisis. Benedict was interested in the community for being disciple of faithful ‘following and imitating’ of Christ.

Benedict’s emphasis on ‘hospitality’ reflects an interest in social spirituality, extending beyond mere humanities-based hospitality to encompass hospitality grounded in ‘being disciple.’ Nevertheless, there remain some areas that need to be improved. As Luther said, interest in discipleship of everyday life must be supplemented. If Korean Christianity concern on Benedict’s spirituality, it should transform the church into a ‘community of discipleship’ in daily life rather than reverting to the monastery.

Key words: discipleship, virtue ethics, social spirituality, monastery, hospitality

I. 들어가는 말

공적 책임, 소통, 공감, 그리고 환대 등 ‘사회적 영성(social spirituality)’의 결여를 비난받는 상황에서,¹⁾ 한국기독교가 『베네딕트 옵션』(*The Benedict Option*)에 주목하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베네딕트 신드롬’은 경미하지 않았고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를 비롯한 수도원에 대한 동경은 수도원 건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동경이 대안적 영성으로서의 ‘새로운 수도원 운동(new monasticism)’에 대한 기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질문들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수도원을 활성화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수도원도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²⁾ “유럽의 수도원을 모방한다면,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없을 것이다.”³⁾

이러한 문제적 상황들을 참고하면서, 이 글은『베네딕트 옵션』이 주목했던 덕 윤리학자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를 통하여 베네딕투스(Benedictus de Nursia)에 관한 다시 읽기, 특히 ‘윤리학적 접근(ethical approach)’을 시도한다.⁴⁾ 역사신학 및 영성학 등의 논의를 존중하면서도 한국기독교의 윤리적 성숙에 기여할 가치를 찾아내려는 취지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영성을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한국기독교를 향한 시민적 지탄을 극복하기 위한 성찰의 하나로,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을 고찰함으로써 사회윤리(social ethics)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으리

1) ‘사회적 영성’ 개념은 다음 글들을 참고하여 윤리학의 관점에서 응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Jesuit Centre for Faith and Justice eds, *Windows on Social Spirituality* (Dublin, Ireland: JCFJ, 2003); 김진호 외, 『사회적 영성』(서울: 현암사, 2014); 박명림, “사회적 영성, 내면윤리의 사회적 구상,” <복음과 상황> (2017.1.26일자).

2) 김선영, “16세기 종교개혁가들과 수도원 개혁,” 『기독교사상』(2015년 10월호), 30~39.

3) 배덕만, “한국개신교회와 수도원 운동,” 『기독교사상』(2015년 10월호), 51~60.

4) ‘Benedictus de Nursia’의 표기와 관련하여, 베네딕도(분도) 혹은 영어식으로 베네딕트 등이 가능하지만, 번역서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베네딕투스’로 표기하기로 한다.

라 기대하는 셈이다.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하여, 『베네딕트 옵션』의 명제 중에서 사회적 영성의 ‘퇴거(withdrawal)’를 암시하는 듯한 부분에 주목해야 할 듯싶다.

“주류에서 문화적으로 탈퇴하라. 텔레비전을 끄라. 스마트폰을 치우라.”⁵⁾

물론, 적극적 행동을 권하는 것도 있기는 하다. “교회를 시작하거나 교회 안에서 그룹을 만들라. 고전적 기독교 학교를 열거나 이미 있는 그런 학교에 동참하고 학교를 강화하라.”⁶⁾ 하지만, 맥락은 다르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관점이 대안적 영성의 추구가 아닌 수도원의 모방 내지는 현상적 재건으로 귀결된다면, 기번(Edward Gibbon)이 로마제국 쇠망의 원인 중 하나로 ‘수도사들이 시민적 의무를 거부하고 금욕과 방종으로 삶을 낭비했던 것’이라 했던 비판을 소환하게 될 우려도 있어 보인다.⁷⁾ 무엇보다도, 『베네딕트 옵션』으로 대변되는 수도원에 대한 동경이⁸⁾ 한국기독교로 하여금 공적 책임과 소통 및 공감과 환대 등 사회적

5) Rod Dreher, *The Benedict Option: A Strategy for Christians in a Post-Christian Nation*, 이종인 역, 『베네딕트 옵션: 탈기독교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선택』(서울: IVP, 2019), 154.

6) 같은 책, 154.

7) Edward Gibbon, *The History of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송은주·윤수인 역, 『로마제국쇠망사 3』(서울: 민음사, 2019), 441~442. 기번은 몇 개의 군단병력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수도원에 숨어들었다고 말한다.

8) 수도원 영성에 대한 한국기독교의 관심은 간단하지 않다. 가톨릭에서 토마스 아 캠퍼스(Thomas A Kempis)의 책을 『준주성범(遵主聖範)』(서울: 가톨릭출판사, 2020)이라고 번역한 것과 달리 한국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로 옮겨서 읽어왔다. 수도사 로렌스(Brother Lawrence)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서울: 두란노, 2018)은 베스트 셀러의 하나가 되어있다. 그 외에 원종천, 『중세영성의 진수 성 버나드』(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19)가 클레르보의 버나드(Bernard de Clairvaux)에 대한 연구서로 출판되었다. 그리고 오방식, 『토마스 머튼 이야기』(서울: 새물결플러스, 2021)는 토마스 머튼(Thomas Merton)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중세 수도원 영성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고 예수회 사제 헨리 나우웬(Henri Nouwen)을 열독하는 현상도 볼 수 있다.

영성의 퇴거를 조장하는 것은 아닐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의 시론(試論)으로서, 이 문제를 진단하기 위하여 베네딕투스에 대한 또 하나의 읽기 즉 ‘덕 윤리를 통한 성찰’을 시도한다. 드레허(Rod Dreher)에 대한 검증이 직접적인 목적인 것은 아니다. 더구나, 새로운 수도원 운동에 관한 찬반논변에 참전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 글은 드레허가 매킨타이어를 응용하여 『베네딕트 옵션』을 말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덕 윤리를 통한 베네딕투스 다시 읽기’를 시도한다. 그리고 베네딕투스 다시 읽기를 위하여 덕 윤리와 수도원 영성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자 됨(being disciple)’으로 설정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수도원에 들어간 제자도, 사회적 영성의 퇴거인가?’

II. 수도원에 들어간 제자도, 사회적 영성의 퇴거인가?

1. 매킨타이어를 응용한 베네딕투스 다시 읽기

1) 매킨타이어의 베네딕투스 소환

베네딕투스에 대한 관심에는 사회적 영성의 중세적 특징과 한계 및 과제를 한국적 맥락에서 고찰하려는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베네딕트 옵션』은 그 현대적 대화를 위한 응용의 통로가 되는 셈이다. 이 문제에 관한 선행연구 중에서 주목할 것은 『베네딕트 옵션』을 정조준한 『베네딕트 수도회 옵션』(*Benedictine Options*)의 반향이다. 『베네딕트 옵션』이 매킨타이어의 『덕의 상실』(*After Virtue*)을 인용하여 현대사회가 도덕적 선을 상실했다는 관점에서 미국 기독교에 대한 진단했던 것과는 다른 관점이다.

우선, 드레허의 관점은 매킨타이어를 수용하여 ‘전략적 후퇴’에 방점을 찍는다.⁹⁾ 핵심은 현대사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전략이라는 명분에

서¹⁰⁾ 매킨타이어를 기독교적 맥락에서 재론하는 데 있다. 특히, ‘또 다른 베네딕투스’에 관한 매킨타이어의 기대를 퇴거의 관점에서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베네딕트 수도회 옵션』은 퇴거가 아닌 재건 내지는 형성 혹은 함양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드레허가 현대의 암흑시대라는 위기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신앙을 따라 살아가게 할 방주를 찾던 것과 달리, 패트릭(Patrick Henry)은 베네딕트 수도회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Benedictines)을 찾아 나선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을 등지는(forsaking)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는(for the sake of) 자들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¹⁾

이것은 드레허가 베네딕투스를 세상에 대한 ‘등 돌림’(turning his back)을 보여준 인물이라고 해석했던 것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드레허의 베네딕트 옵션과 달리, 베네딕트 수도회 옵션에서는 베네딕투스가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용하는 재건(rebuilding) 내지는 성품의 함양에 관심한 것이라고 해석한다.¹²⁾ 과연, 베네딕투스의 통찰은 퇴거인가? 혹은 함양인가?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매킨타이어의 결정적 문장을 소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고도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 대신 또 한 명의 확실히 다른 베네딕투스를 기다린다.¹³⁾

9) Rod Dreher, 『베네딕트 옵션』, 16.

10) Cameron M. Thompson, *The Original Benedict Option Guidebook: Benedict of Nursia's Own Rules for Living Christian Community in a Post-Christian Society* (Montgomery, IL; Marchese Di Carabas Publisher, 2021), 4.

11) Patrick Henry, *Benedictine Options: Learning to Live from the Sons and Daughters of Saints Benedict and Scholastica*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2021), benedictine, 2.

12) 같은 책, 6.

13) Alasdair MacIntyre,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Notre Dame; University

이 문장은 상징성을 지닌다. 『베네딕트 옵션』에서 촉발된 매킨타이어의 관심을 통하여 베네딕투스에 대한 덕 윤리학적 접근을 시도할 단초이기 때문이다. 매킨타이어가 6세기 수도원 운동을 일으켰던 베네딕투스를 통해 새로운 삶의 방식에 관심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로마의 도덕공동체가 붕괴되는 시기에 출현한 베네딕투스를 새로운 공동체를 구축한 인물로 기대한 부분이라 하겠다.¹⁴⁾ 서로마 멸망 후 야만의 땅에서 기독교의 덕을 바탕으로 유럽문명을 가꾼 베네딕투스처럼, 세계대전의 야만이 쓸고 간 자리에서 ‘고도(Godot)’를 기다리는 현실에 빗대어, 매킨타이어는 고도가 아닌 또 다른 베네딕투스를 기대한다.¹⁵⁾ 그것은 도덕공동체에 대한 기대로서,¹⁶⁾ 도덕을 재건할 도덕공동체에 대한 예지적 요청이다.¹⁷⁾ 다만, 암흑시대를 견뎌 낼 공동체를 요청하는¹⁸⁾ 매킨타이어의 관심은 중세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베네딕투스에 대한 기대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베네딕트 옵션』이 매킨타이어에 대한 기독교적 반향이라면, 드레허가 그 전부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매킨타이어를 교회에 적용한 윌슨(Jonathan R. Wilson)의 ‘새로운 수도원 공동체(New Monastic Community)’에 대한 주목은 현대기독교를 위한 ‘대안적 영성’에 대한 관심으로 읽어야 한다.¹⁹⁾ 이것은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에게

of Notre Dame Press, 1984), 263. *이 책의 번역본은 이진우 역, 『덕의 상실』(서울: 문예출판사, 1997)을 참고하였다.

14) Leah Libresco, *Building the Benedict Option*, 15.

15) 최중원, 『수도회, 길을 묻다: 제국의 가치에 저항하는 삶의 방식』(서울: 비아토르, 2023), 304.

16) A. MacIntyre, *After Virtue*, 263. ‘construction of local forms of community within which civility and the intellectual and moral life can be sustained through the new dark ages that are already upon us’

17) Mark Lilla, *The Shipwrecked Mind: On Political reaction*, 석기용 역, 『난파된 정신』(서울: 필로소피, 2019), 111~112.

18) Rod Dreher, 『베네딕트 옵션』, 38.

서 나타난 새로운 수도원 운동의 단초들과 연계될 수 있다.²⁰⁾ 이러한 새로운 수도원 운동에 대한 관심은 한국기독교를 위한 대안적 영성의 모색이라는 맥락에서 조명될 요소라고 할 수 있다.²¹⁾ 이러한 흐름을 참고하면서, 이 글은 또 다른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덕 윤리에 기초한 제자됨에 관한 통찰을 베네딕투스에게서 발견해냄으로써 한국기독교의 윤리 성숙을 위한 지침을 얻고자 하는 기대이다.

2) 베네딕투스 다시 읽기: ‘따름과 본받음’의 제자 됨

(1) 덕 윤리로 본 베네딕투스의 시대: 도덕의 위기

맥킨타이어의 베네딕투스 소환과 관련하여, 이 글은 6세기 로마제국의 도덕적 혼란과 위기라는 시대적 배경으로부터 재론하고자 한다. 물론, 중세 버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중세’를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중세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중세가 있기 때문이다.²²⁾ 어찌 보면, ‘중세는 무엇이 아닌가?’를 질문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²³⁾ 에코(Umberto Eco)의 중세 컬렉션은 이 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경우이고, 중세에 관한 호이징아(Johan Huizinga)의 관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²⁴⁾

19) Jonathan R. Wilson, *Living Faithfully in a Fragmented World: From After Virtue to a New Monasticism*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2010) 2nd edition.

20) 강안일, “새로운 수도원 운동: 본회퍼의 사상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37(2017), 7~43.

21) 김홍일, “한국교회 문체와 수도원 영성의 재발견,” 『기독교사상』675(2015), 46~53.

22) Ian Mortimer, *Medieval Horizons: Why the Middle Ages Matter* (New York, NY; Vintage Publishing, 2023), 2.

23) Umberto Eco, *Il Medioevo I: , Cristiani, Musulmani I: Barbari, Cristiani, Musulmani*, 김효정 외 역, 『중세1: 476~1000, 야만인, 그리스도교도, 이슬람교도의 시대』(서울: 시공사, 2015), 13.

24) Johan Huizinga, *Herfsttij der Middeleeuwen*, 이종인 역, 『중세의 가을』(서울: 연암서가, 2012), 역자 서문, 8면을 참고하기 바란다.

알려진 것처럼, 중세는 ‘기도하는 사람(oratores),’ ‘싸우는 사람(bellatores),’ 그리고 ‘일하는 사람(laboratores)’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세인은 교회를 떠나서는 태어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독교는 중세의 중심이었다. 심지어 중세의 세계지도에 지상낙원이 표시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낙원을 보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돕는 데 기여할 정도로 기독교는 중요했다.²⁵⁾ 나아가, 기독교는 도시의 형성과 발전에도 영향을 주어 중세 초에 형성된 도시의 구조는 중세를 거쳐 근대 초에 이르기까지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²⁶⁾

이러한 해석들을 통하여 중세를 암흑기로 보면 안 된다는 평가들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지만, 어둠의 시대라는 흑평이 삭제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중세에 암흑을 가져온 요인으로 ‘망탈리테(mantallite)’ 문제를 부각시키는 관점에서는 중세인들이 불안감에 지배되어 권위와 신적 개입에 의존하는 마술적 망탈리테가 나타났다고 주장한다.²⁷⁾ 이 주장에 따르면, 베네딕투스는 “수도원에서 신중함을 덕의 어머니로 여긴 나머지, 처음 입회한 수도원을 떠나 다른 수도원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가르친” 인물일 뿐이다.²⁸⁾

하지만, 그에 대한 흑평은 역설적으로 베네딕투스의 존재감을 재조명하게 해주는 것일 수 있다. 중세 중에서 암흑기를 특정하려면, 그것은 아마도 계속되는 전쟁 때문에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교육과 문화가 황폐화된 시기에 해당할 듯싶다.²⁹⁾ 공교롭게도, 베네딕투스의 활동기가 이 시기

25) 정인철, “서양 중세 세계지도에 표현된 지상낙원의 지도학적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3-3(2008), 412~431.

26) 박용진, “중세 도시의 지리적 구조와 기독교,” 『역사·사회·문화』7(2012), 83~106.

27) Jacques Le Goff, *La civilisation de l'Occident médiéval*, 유희수 역, 『서양중세문명』(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8), 564.

28) 최덕성, “중세 기독교 망탈리테,” 『역사신학논총』4(2002), 166~191.

29) Sanctus Gregorius Magnus, *Vita et Miracula Venerabilis Benedicti Abbatis*, 이형우 역, 『베네딕도 전기』(왜관: 분도출판사, 1999), 17.

에 접친다. 베네딕투스가 중세를 대표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암흑의 시기를 살아낼 통찰을 준 인물로 볼 수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의 회심 후 교회가 세속화된 이후로 누적된 정황을 베네딕투스 해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콘스탄티누스가 비잔티움에 기독교 도시를 건설하고자 했던 순간, 기독교는 법률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³⁰⁾ 이후 정치화된 기독교는 중세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다. 콘스탄티누스를 통하여 기독교는 대중적 신앙으로 전환되었고³¹⁾ 기독교인은 늘어났지만, 안타깝게도 그 결과로 “제자도의 기준은 하향”되고 말았다.³²⁾ 제자 됨의 문제가 급부상하게 된 배경이 이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문제시한 사막교부들은 로마에 의한 순교의 시대가 지나간 후 복음을 실천하는 제자 됨에 관심을 두었다. 그것은 ‘백색 순교’라고 불릴 정도로, ‘제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양립하는 현장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거센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³³⁾

참고로, 사막교부들로부터 간접 영향을 받아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제자 됨에 기초한 사회적 영성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콘스탄틴 결탁이 드러난 시대에 제자 됨의 중요성을 재발견하였으며 ‘사사로운 사랑(amor privatus)’을 극복하고 ‘사회적 사랑(amor socialis)’을 구현하는 사회적 영성을 강조했다.³⁴⁾ 그리고 히포교구 사제관에 수도

30) Luke Bedwell, *Gods and Humans, What Is the Difference?: A Code of Ethics for a Medieval World* (Morrisville, NC; Lulu.com, 2016), 11.

31) Team Dowley, *A Public Faith*, 라은성 역, 『대중적 신앙』(서울: 그리심, 2102), 21~53. 여기에 사용된 ‘public’은 공공성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대중성을 뜻하는 것으로 읽어야 할 듯싶다.

32) Jaroslav Pelikan, *Jesus through the Centuries*, 『예수, 역사와 만나다』(서울: 비아, 2019), 276.

33) 최종원, 『수도회, 길을 묻다』(서울: 비아토르, 2023), 29~31.

공동체를 설립하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규칙』(*Regula Sancti Augustini*)을 정한 것은³⁵⁾ 사막교부들의 영성이 간접적으로 계승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막교부들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유산, 특히 제자 됨에 대한 관심이 베네딕투스에게 이어졌을 때,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5세기에 태어난 베네딕투스는 허물어져 가는 로마제국 말기의 정치상황에서 영적으로서 도덕적으로 혼란스러운 위기의 시대를 살았다. 베네딕투스는 어수선하고 분열된 세상을 마주하였으며 혼란과 위기는 6세기까지 이어진다. 여러 차례의 약탈을 당한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 종교적 혼란이 극심한 상태로 치달았다.

이러한 정황들은 매킨타이어가 현대사회의 도덕적 위기를 진단하면서 계몽주의적 기획의 실패를 선언하고 상호통약불가능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규정한 것과 대자부이다. ‘또 다른 베네딕투스를 기다린다고 말한 맥락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베네딕투스를 혼란의 시대를 제자 됨을 위하여 신실하게 살려는 자들을 위한 보호처를 제공하고 쇠락해 가는 시대에 증인을 보내준 인물로 해석할³⁶⁾ 접점을 제공해 주는 셈이다.

(2) 덕 윤리로 본 베네딕투스의 대안: 제자 됨의 공동체

베네딕투스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중세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하는 덕의 목록이 성경의 목록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이다. 매킨타이어는 『윤리의 역사, 도덕의 이론』(*A Short History of Ethics*)에서,

34)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와 ‘사회적 사랑(amor socialis)’의 사회적 영성: 제자윤리의 관점에서,” 『기독교사회윤리』55집(2023), 135~167.

35) 문시영, “『규칙서』에 나타난 아우구스티누스의 내적 윤리,” 『남서울대 논문집』24(2018), 97~113.

36) Leah Libresco, *Building the Benedict Option: A Guide to Gathering Two or Three Together in His Namebuilding* (San Francisco, CA: Ignatius Press, 2018), 23,

중세의 윤리가 ‘현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던 특징이 있다고 보았다.³⁷⁾ 특히, 중세를 대변하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수용하여 욕망을 도덕적 목적에 맞추어 변화시키기를 추구한 인물이라고 해석한다.

『누구의 정의? 어떤 합리성?』(*Whose Justice? Which Rationality?*)에서도 덕 윤리의 중세적 전환의 단면을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전통과 아우구스티누스 전통을 종합했다고 소개한다.³⁸⁾ 그리고 『도덕탐구의 경쟁적 입장들: 백과전서, 계보학, 전통』(*Three Rival Versions of Moral Enquiry*)에서, 매킨타이어는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관점에 주목하면서 그중에서도 토마스 아퀴나스 전통을 백과전서와 계보학이라는 상충적 전통들의 매개자(via media)로 상정한다.³⁹⁾ 그리고 매킨타이어가 중세적 덕의 목록이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읽어냈다는 점이 중요해 보인다.

가장 중요한 저서는 『덕의 상실』(*After Virtue*)이다. 매킨타이어는 호머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신약성서, 아퀴나스 그리고 프랭클린으로 이어지는 덕의 계보를 다루면서 제13장을 중세에 할애한다. 매킨타이어는 중세문화의 ‘상이하고 경쟁적인 요소들’을 말하면서 중세가 영웅사회라는 전(前)-기독교적 유산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교도의 덕과 기독교의 덕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는 시대였다고 보았다.⁴⁰⁾

매킨타이어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스콜라철학이 아리스토텔

37) Alasdair MacIntyre, *A Short History of Ethics*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9), 110~120.

38) Alasdair MacIntyre, *Whose Justice? Which Rationality?*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8), 164-182.

39) Alasdair MacIntyre, *Three Rival Versions of Moral Enquiry: Encyclopaedia, Genealogy, and Tradition*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4), 4.

40) Alasdair MacIntyre, *After Virtue*, 248.

레스의 전통을 이어받아 4주덕(cardinal virtues)에 신학적 덕을 종합했다고 말한 것은 타당해 보인다.⁴¹⁾ 하지만, 중세의 덕에 관해 매킨타이어가 충분히 주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덕에 대한 관심은 수도사들을 통해서도 이어졌다. 수도사들이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고자 했던 이야기들이 그것이다. 수도자들이 추구한 금욕, 동정, 순결, 은둔 등은 기독교가 발전시켜온 자산이자 전통이다.⁴²⁾ 3세기부터 수도사의 ‘생애(Vita)’를 기록한 성인전들이 수도사들을 덕의 모범으로 삼도록 권했다. 예를 들어, 『안토니우스의 생애』(*Vita Antonii*)에서 “덕의 길을 시작하였으면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덕에 관하여 이방인이 되지 말라”고 했던 부분은 금욕과 수행을 통해 제자 됨을 추구했음을 보여준다.⁴³⁾ 안토니우스 등 사막교부들은 규칙 대신 “자신이 자신의 규칙이 되어 살았으며 돈을 탐욕이나 마귀로 정죄했으며”⁴⁴⁾ 이후 수도원에서의 공주(共住)와 순종을 통해 제자 됨을 위한 덕의 함양을 추구했다.

게다가, 철학자들도 진리를 위하여 금욕생활을 실천하던 상황이었다. 고대철학자들이 실천적 삶(vita activa)와 관조적 삶(vita contemplativa)에 대한 관심했던 전통이 사막수도자들을 통해 금욕과 명상의 관조적 삶으로 계승되었음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아카데미 폐쇄 후 알렉산드리아에서 계승된 철학은 지혜에 대한 사랑(philosophos)에서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philotheos)으로 전환되어 수도적 삶에 영향을 주었다.”⁴⁵⁾

41) Alasdair MacIntyre, *After Virtue*, 167.

42) 이충범, “고대교회의 금욕주의에 관한 한 연구: 은둔과 독신수행을 중심으로,” 『중세철학』17(2011), 38~60.

43) Athanasius, *Vita Antonii*, 전경미 역(*영역관 한글번역) 『성 안토니우스의 생애』(서울: 키아츠, 2019), 41.

44) 남성현, “수도적 영성과 전통이 개신교에서 지니는 의미와 가치,” 『기독교사상』675(2015), 22~29.

45) 전광식, “Philosophos에서 Philotheos로: 헬라철학의 마지막 단계로서의 후기 고대

이러한 배경에서, 수도생활은 ‘완덕’(完德 혹은 完全性, perfectio)의 추구 내지는 덕의 함양과 연관된다. “제자직 혹은 제자다운 삶이란 완덕에 이르라는 초대를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나서며 본받는 삶으로서,”⁴⁶⁾ 수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자 했다.⁴⁷⁾ 훗날 루터의 관점에서 수도원이 덕을 추구하는 것이 공로주의적 색채를 지닌 것이라고 비판받을 여지가 있지만, 제자 됨을 위한 덕의 함양이라는 해석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면, 중세의 덕 윤리는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난다. 그 하나는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종합된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독교적 수용이고, 다른 하나는 수도원을 통한 덕의 추구이다. 주목할 것은 스콜라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4주덕과 신학적 3덕을 중심으로 덕을 논의했던 것과 달리, 수도원 운동에서는 목회적이고 실천적인 지평에서 덕을 추구했다는 사실이다.⁴⁸⁾ 이것은 후대에 ‘7대죄’와 그 극복에 대한 모색으로 이어졌으며, 그리스도인의 성품함양과 영성에 대한 사막교부들의 관심을 보여준다.⁴⁹⁾

덕 윤리를 그리스도의 제자 됨과 연관 짓는 맥락이 바로 이것이다. 수도자들이 덕을 추구한 것은 제자 됨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베네딕투스의 경우는 제자 됨의 공동체적 지평을 보여준다. 사막교부들 이후

알렉산드리아학파의 철학정의론과 비잔틴사상에의 영향,” 『대동철학』 61(2012), 368~391.

46) 전달수, “제자직에 관한 고찰: 그리스도 모방(imitatio)과 추종(sequela)의 관점에서,” 『현대기독교사상』 10(1994), 29~51.

47) 허성석, 『중용의 사부, 베네딕도의 영성』(왜관: 분도출판사, 2015), 21.

48) Jean Porter, “Virtue ethics in the medieval period,” in Daniel C. Russell,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Virtue Ethic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76.

49) 같은 책, 70~74. *참고로, 가톨릭에서는 ‘七罪宗’이라고 옮긴다. 라틴어는 septem peccata capitales, 영어에서는 Cardinal Virtues를 패러디하여 Cardinal Sins로 번역하기도 한다.

공주(共住)수도원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베네딕투스의 수도공동체는 위기와 혼란의 시대를 살아갈 영적이고 도덕적인 해법이자 대안으로 덕의 함양을 통한 제자 됨의 공동체로 상정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었다.

특히, 초기의 수도원 공동체는 그리스도인 됨이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비전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것은 수도원 공동체가 덕의 발전과 실천에 공헌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수도원 공동체의 구조 자체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의 목적을 받아들이게 했으며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관점을 공유하도록 해주었기 때문이다.⁵⁰⁾ 이것과 관련하여, 영성에 대한 연구에 제자도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으며, 제자도의 추구는 덕 윤리를 통하여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다는 주장도 주의 깊게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⁵¹⁾

베네딕투스에 대한 해석에 제자도를 적용하면, ‘따름과 본받음’이라는 요소가 부각된다. “수도자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는 결국 ‘따름’과 ‘본받음’이라는” 해석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수도생활의 궁극적인 주제는 그리스도를 따름’이라고 할 수 있다.⁵²⁾ 무엇보다도, 수도원 운동은 순교를 통해 제자 됨을 입증하던 시대 이후 그들을 계승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것이었다.⁵³⁾ 완덕의 추구 내지는 덕의 함양이 기독교적 맥락에서 제자 됨의 가치로 재해석되는 셈이다.

참고로, 매킨타이어에 앞서 베네딕투스를 주목한 인물이 있었다. 그레

50) Romanus Cessario, *The Moral Virtues and Theological Ethics*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9, 2nd ed.), 48

51) William C. Spohn, “Christian Spirituality and Theological Ethics,” Arthur Holder, ed., *The Blackwell Companion to Christian Spirituality* (Malden, MA: Wiley-Blackwell, 2011), 267.

52) 백남일, 『따름과 본받음』(서울: 형제애, 2015), 12.

53) 백남일, 같은 책, 96.

고리우스(Gregorius Magnus)는 4권으로 구성된 『대화집』(*Dialogi de Vita et Miraculis Patrum Italicorum*) 제2권에 『베네딕투스 전기』(*Vita et Miracula Venerabilis Benedicti Abbatis*)를 편성하여 『베네딕투스 규칙』을 소개하고 보편적인 권위를 지닌 것으로 격상시켰다. 그레고리우스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람(vir Dei) 베네딕도는 뛰어난 분별력(discretione praecipuam)과 명쾌한 표현(sermone lucentem)으로 규칙서 저술했으며,⁵⁴⁾ 9,000개 정도의 낱말로 구성되어 73장으로 집필된 『베네딕투스 규칙』은 순명, 정주(定住), 정진을 위한 기도, 노동, 공부, 환대, 권위, 소유 등을 다룬다.⁵⁵⁾ 그레고리우스가 이 규칙서를 모범으로 삼아⁵⁶⁾ 혼란과 위기의 로마제국 말엽의 신앙과 삶을 지도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려 했다는 점은 매킨타이어의 문제의식과 연관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참고하면서, 베네딕투스 수도공동체가 덕의 함양을 위한 공동체로서 ‘제자 됨’을 지향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덕의 함양을 위한 로컬 공동체를 제시한⁵⁷⁾ 매킨타이어와 형식에서는 연속성을 지닌 선구일 수 있으나, 본질적 지향은 제자 됨의 공동체에 있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성품의 변화를 제자 됨의 문제로 풀어갈 단초들을 참고하여⁵⁸⁾ 베네딕투스에게 이어진 사막교부로부터의 수도원 영성의 핵심가치가 제자 됨에 있었다고 해석하려는

54) *Vita et Miracula Venerabilis Benedicti Abbatis*, II,36. 이 부분은 다음 책에서 인용했다. Benedictus, *Regula Benedicti*, 이형우 역주, 『수도규칙』(왜관: 분도출판사, 2023), 해제, 21. 아울러, Gregorius Magnus, *Vita et Miracula Venerabilis Benedicti Abbatis*, 이형우 역주, 『베네딕도 전기』(왜관: 분도출판사, 2017)을 참고하였다.

55) Esther de Waal, *Seeking God: The Way of St. Benedict*, 김한창 역, 『성베네딕도의 길』(왜관: 분도출판사, 2002), 33.

56) Gregorius Magnus, *Vita et Miracula Venerabilis Benedicti Abbatis*, 이형우 역주, 『베네딕도 전기』(왜관: 분도출판사, 2017), 75.

57) A. MacIntyre, *After Virtue*, 263.

58) Richard M. Gula, *Call to Holiness: Embracing a Fully Christian Life*, 최성욱 역,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서울: 바오로딸, 2015), 284.

본질적인 이유이다.

중세교회의 성직자를 재속 성직자와 수도 성직자로 나누고 수도원에서만 제자 됨을 추구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제자 됨에 관심하는 것이야말로 중세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위기를 풀어갈 해법 내지는 대안이었다는 사실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베네딕투스가 공동체적 지평에서 제자 됨을 추구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베네딕투스에게서 읽을 수 있는 수도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추구는 대립이나 저항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하려는 관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심에 제자 됨이 자리한다. “수도원에서의 배움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었으며 지식을 얻으려는 것이라기보다 수도자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⁵⁹⁾

베네딕투스는 ‘수도원 제자도(monastic discipleship)’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⁶⁰⁾ 수도원은 그리스도의 제자 됨을 위한 공동체로서,⁶¹⁾ 수도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었다.⁶²⁾ 수도생활의 근본목적은 하나님을 찾음(Quaerere Deum)이기 때문이다.⁶³⁾ 그리고 수도자들의 정체성과 사명에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는 ‘따름’과 ‘본받음’이다. 따름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본받음은 부활 사건 이후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규정한다.⁶⁴⁾ 베

59) Gerald L. Sittser, *Water from a Deep Well*, 신현기 역, 『영성의 깊은 샘』(서울: IVP, 2018), 167.

60) Johanna Marie Melnyk, “Following in Community: St Benedict’s Flexible Vision for Faithful Discipleship,” in Andrew Hayes and Stephen Cherry, *The Meanings of Discipleship*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2021), 53.

61) 최종원, 『수도회, 길을 묻다』, 272.

62) Dennis L. Okholm, *Monk Habits for Everyday People*, 『수도원에서 배우는 영성 훈련』(서울: 규장출판사, 2022), 60.

63) *Regula Benedicti*, 8.7.

64) 백남일, 『따름과 본받음』, 15.

네딕투스 수도원에 두 가지가 모두 담겨있다는 뜻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델로 베네딕투스를 읽을 수 있겠다.⁶⁵⁾

“주님을 섬기기 위한 학교(Dominici scholar servitii)를 설립하고자 한다”며⁶⁶⁾ 시작하는 『베네딕투스 규칙』에는 이러한 지향성이 분명하게 담겨있다. 수도원을 군사훈련소에 비유한 것과는 상통한다. ‘스콜라(scholar)’가 스콜라철학(Scholasticism)에 적용되면 학문을 위한 ‘한가함’이나 ‘여유로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지만, 베네딕투스의 경우는 로마를 방어한 특수부대 명칭과 연결된다. 세상에 가득 찬 악에 대항하는 군대를 상징한 셈이다. 실제로, 베네딕투스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군대의 신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 길 가는 나그네, 학교의 제자 등으로 때를 따라 호칭을 달리했다.⁶⁷⁾

베네딕투스는 은자의 이상을 가진 동방수도원과 달리 기독교의 용사들을 양성하는 훈련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흥미롭게도, 성직자의 복장에 사회적 연관성이 반영되어 있다는 주장에 따르면, 베네딕투스 수도회의 복장에는 거룩한 전투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 그리스도를 위한 전투에 필요한 구원의 투구(galea salutis), 용기의 갑옷(loica fortitudinis), 믿음의 방패(fidei arma)가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다.⁶⁸⁾ 이것은 베네딕투스가 ‘그리스도의 군사(militans Christi)’로서의 제자 됨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⁶⁹⁾ 베네딕투스에 따르면,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

65) Anselm Grun, *Benedikt von Nursia*, 정하돈 역, 『안셀름 그윈의 베네딕도 이야기』(왜관: 분도출판사, 2002), 12.

66) *Regula Benedicti*, Incipit Prologus, 45.

67) Esther de Waal, 『성베네딕도의 길』, 34.

68) Maureen C. Miller, *Clothing the Clergy: Virtue and Power in Medieval Europe, C. 800-1200* (New York,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14), 211.

69) *Regula Benedicti*, 2-3, 8-9, 16-17.

룩한 순종이라는 전투를 수행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⁷⁰⁾

깊어야 할 것이 있다. 『베네딕투스 규칙』이 지시와 권고의 형식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율법주의라기보다 덕의 형성을 목적으로 삼았다. 베네딕투스의 규칙들은 “그리스도인의 덕성함양을 위한 지침으로서, 계명들을 지키고 초자아(Über-Ich)를 진정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다.”⁷¹⁾ 베네딕투스에게서 규칙들은 하늘 왕국의 법(lex)으로서,⁷²⁾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지침서이다. 매킨타이어의 덕 윤리가 의무론적 행위(doing)에서 성품 혹은 존재(being)로 관심을 전환시킨 것과 궤를 같이하는 부분일 듯싶다.

베네딕투스가 규칙들을 통하여 제자 됨을 추구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베네딕투스에 따르면, 수도생활은 변화를 위한 영적 기술(ars spiritualis)이며 규칙들은 초보자를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다.⁷³⁾ 이것은 베네딕투스가 영적 금메달리스트나 종교적 슈퍼스타를 길러내려 했던 것이라기보다 영혼의 고결함과 영적 근육을 키워나가는 것에 주목했음을 보여준다.⁷⁴⁾ 마침내 고결한 정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⁷⁵⁾ 훈련을 통한 덕의 함양에 관심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덕의 함양은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베네딕투스의 ‘성무(聖務, Opus Dei)’는 덕의 공동체적 훈련에서 중요한 방편이다. 『규칙서』는 수도공동체에서 수도사의 일과를 구성하는 기도, 독서 및 예배 등을 상세

70) *Regula Benedicti*, Incipit Prologus, 40.

71) Anselm Grun, 『안셀름 그윈의 베네딕도 이야기』, 165.

72) Susan Wise Bauer, *The history of the medieval world: from the conversion of Constantine to the first Crusade* (New Yor, NY: W. W. Notron & Company Inc, 2010), 148.

73) *Regula Benedicti*, 73.8.

74) Dennis L. Okholm, 『수도원에서 배우는 영성 훈련』, 31.

75) *Regula Benedicti*, 73.9.

히 기술하였으며 ‘렉시오 디비나’도 포함된다. 베네딕투스는 거룩한 독서와 노동을 통하여 생활리듬 속에 경건하게 성경에 집중하는 시간을 공동체생활의 시간표에 넣었다.⁷⁶⁾ 참고로, 기상 시간을 포함하여 수도원 일과 시간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 시간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표현한다는 주장도 있다.⁷⁷⁾

‘기도하고 일하라(ora et labora)’는 명제는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것인 동시에 기도가 수도생활의 모든 것이라는 생각에 문제를 제기한다. 베네딕투스에게서 일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⁷⁸⁾ 그리고 소유 대신 사용을 말하는 부분 역시 중요한 통찰을 준다. 어느 것도 개인의 소유일 수 없으며 대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게 했다.⁷⁹⁾ 이것은 베네딕투스 읽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요소로서, 덕의 함양이 공동체적 맥락에서 구현된다는 점에 각별히 주목해야 한다.

베네딕투스의 핵심에 해당하는 겸손의 12단계에 관한 교훈에서,⁸⁰⁾ 베네딕투스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timor Dei)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대한 사랑(amor Dei)로 나아가야 한다고 권한다.⁸¹⁾ 겸손의 모든 단계를 거친 후에 수도사는 두려움을 내쫓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⁸²⁾ 겸손은 ‘그리스도의 모방(imitatio Christi)’이

76) James C. Wilhoit and Evan B. Howard, *Discovering Lectio Divina*, 홍병룡 역,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의 모든 것』(서울: 아바서원, 2016), 22.

77) Seb Falk, *The Light Ages: The Surprising Story of Medieval Science* (New York, NY; W. W. Norton & Company, 2020), 64.

78) Kathleen Norris and Richard Yeo, *Wisdom from the Monastery: The Rule of St. Benedict for Everyday Life*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2006), 117.

79) Annette Kehnel, *Wir konnten auch anders*, 홍미경 역, 『미래가 있던 자리: 중세 유럽의 역사에서 발견한 지속 가능한 삶의 아이디어』(서울: 방송대출판문화원, 2022), 48.

80) Ulrike Wiethaus, “Christian Spirituality in the Medieval West(600~1450),” in Arthur Holder, ed., *The Blackwell Companion to Christian Spirituality*, 112.

81) 허성석, 『중용의 사부, 베네딕도의 영성』, 62.

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일치에 이르는 길이라고 보았던 것이라 하겠다.⁸³⁾

이제까지 다룬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면, 베네딕투스를 덕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제자 됨을 추구한 중세 버전으로 입을 여지는 충분히 보인다. 그에게서 덕의 함양은 제자 됨의 공동체적 맥락에 있다.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삶이 유일한 길잡이로 삼아 그분을 따라나서고 본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덕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입을 수 있다.⁸⁴⁾

그리스도를 따름과 본받음의 관점에서 볼 때, 베네딕투스의 덕에 대한 관심은 제자 됨의 공동체적 맥락에서 구체화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항상 그리스도께서 기준이어야 하며⁸⁵⁾ 수도공동체를 통하여 성무일과를 비롯한 다양한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본받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면, 베네딕투스에게서 나타난 특징을 ‘수도원에 들어간 제자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수도 공동체 생활을 통해 제자 됨을 구현하려는 덕의 중세적 전환이 보여준다.

2. 사회적 영성의 퇴거인가?

1) 공적 책임과 소통 및 공감과 환대의 퇴거일까?

남은 문제가 있다. ‘제자 됨’을 위하여 수도원에 들어갔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을 구현하는 길일 수 있으나 ‘이웃 사랑을 구현할 길 즉 사회적 영성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바꾸어 질문하면 이렇게 된다. 제자

82) *Regula Benedicti*, 7.47.

83) Anselm Grun, 『안셀름 그윈의 베네딕도 이야기』, 50.

84) 전달수, “제자직에 관한 고찰: 그리스도 모방(imitatio)과 추종(sequela)의 관점에서,” 30.

85) 백남일, 『따름과 본받음』, 101.

됨을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퇴거하고 사회적 영성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이 부분은 매킨타이어가 크게 관심하지 않았던 논제이지만, 중세의 덕 윤리를 말하는 과정에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이다.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퇴거가 맞는다. 베네딕투스의 경우, 세상에서 떠나 수도원에 들어간 전형이다.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추정들이 있기는 하다. 베네딕투스가 동굴에 은거하며 수도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세상 속에서도 수도적 이상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 수도원 운동이었다는 관점이 그것이다.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신앙을 위해 세상을 떠난다는 것에 생긴 문제는 인기가 너무 좋았다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세상과 분리되었다기보다 오히려 사회의 새로운 일부가 되기에 이르렀다.”⁸⁶⁾

과연, 베네딕투스는 세상을 등진 것일까 혹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섬겼던 것일까? 관상수도회(contemplative order)는 봉쇄를 기반으로 수도원 밖을 위하여 기도하는 형태로, 그리고 활동수도회(active order)는 일종의 사회의 간접시설의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섬김을 구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수도자 출신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된 성직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도우라는 그리스도의 명령(마25:35~40)을 공적 덕목으로 생각하였고 복음적 가난의 이상을 마음에 품고 제도적인 자선에 적극적일 경우도 많았다.”⁸⁷⁾

베네딕투스의 경우는 어떨까? 굳이 구분하지만, 관상수도회는 아니고 활동수도회에 가까워 보인다. 그중에서 베네딕투스가 ‘환대’(hospitality)를 강조한 것은 섬김을 통한 사회적 영성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베네딕투스가 강조한 환대의 실천에서 주목할 것은 “낮선

86) Eleanor Janega, *The Middle Ages: A Graphic History*, 김완수 역, 『지적 대화를 위한 교양인의 중세 이야기』(서울: 팬덤북스, 2022), 37.

87) 남성현, 『병원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기독교 영성의 역할』(서울: CLC, 2020), 125.

이들을 대하는 태도이다. 그것은 나그네, 가난한 자, 이주민 등 정의의 손길이 닿지 않아 편견 속에 탄식하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태도이다.”⁸⁸⁾ 베네딕투스에 따르면, 환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데 초점을 맞추어 유지하게 하는 도구이다.⁸⁹⁾ 이러한 뜻에서, 『베네딕투스 규칙』은 자신을 순례자나 방문객으로 수도원에 소개하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영접해야 한다고 명령한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영접하였다”(마25:35)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수도원으로 방문하는 자들에 대한 환대라는 점에서 현대 인문학 및 현대의 윤리에서 다루는 것과 결이 다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제자도에 근거한 환대를 말해준다. 방문한 모든 손님을 그리스도처럼 영접해야 한다고 했을 때,⁹⁰⁾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보다 특별하게 영접을 받으시기 때문”이라고⁹¹⁾ 말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환대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 됨으로서의 환대를 말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베네딕투스는 문 앞에 온 낯선 이가 위협과 유혹을 초래할 수 있고 변장한 천사일 수 있으나, 환대의 실천이 궁극적으로는 성육신의 신비에 더 가까이 이끌어주리라 생각했다.⁹²⁾ 또한, 베네딕투스가 성무일과를 통하여 공적 기도를 강조한 것은 일과표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편성함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환대 즉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려는 것이었다. 손님을 환영하는 일 등 다른 모든 환대의 근거는 여기에서 도출된다. 수도사들이 하나님을 만날 방을 준비하는 일(to make room)이라고 생각한

88) 최종원, 『수도회, 길을 묻다』, 271.

89) *Regula Benedicti*, 19.

90) *Regula Benedicti*, 53.1.

91) *Regula Benedicti*, 53.15.

92) Kathleen Norris and Richard Yeo, *Wisdom from the Monastery: The Rule of St. Benedict for Everyday Life The Rule of St. Benedict for Everyday Life* (Collegeville, MN; 2006), 125.

셈이다.⁹³⁾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베네딕투스에게는 현대 외에는 사회적 영성을 보여주는 요소가 없어 보이기 는 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영성의 퇴거를 단정 짓기는 선부르다. 방식이 다르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베네딕투스는 “어떤 정책도 입안하지 않았지만, 그의 통찰력은 사회정치적 상황을 변화시켰다. 자신의 방식으로 세계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⁹⁴⁾

어떤 의미에서, 베네딕투스의 관점은 “세상에서의 도피가 아니다. 오히려 세상을 위해 더 깊이 투신하기 위함이었다. 베네딕투스에게서 세상에서의 물러남만 강조하다 보면 현실을 등한시하고 현실도피에 빠질 위험이 있다. 반대로 세상 안으로만 강조하면 뿌리 없는 활동주의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두 가지는 동시에 강조되어야 한다.”⁹⁵⁾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문장이 있다.

‘세상에서 떠남-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집중-세상으로의 복귀’로 이해할 수 있다. 떠남의 단계에서, 주님만 찾기 위하여 세상에서 멀어져 갔다. 복귀의 단계에서, 다른 방법으로 더 깊이 세상 안으로 되돌아온다. 세상으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⁹⁶⁾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이러한 관점은 멀리 사막교부들에게까지 소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독교 병원의 탄생은 4세기 수도주의 영성에 연관된 것으로서, 기독교 병원사는 영성사의 주요한 증인이며 그 영성의 외연이

93) Kathleen Norris and Richard Yeo, *Wisdom from the Monastery*, 103.

94) Anselm Grun, 『안셀름 그윈의 베네딕도 이야기』, 31.

95) 허성준, “성 베네딕도의 영적 여정,” 한국베네딕도협의회 편, 『교부』(왜관: 들숨날숨, 2017), 97.

96) 허성준, 같은 글, 96.

다.⁹⁷⁾ 로마의 군인병원은 전투력 보존의 차원에서 부상병과 병든 병사들을 돌보는 기관이었지만,⁹⁸⁾ 4~6세기 병원들을 비롯한 빈민구호시설들은 복음서 말씀의 역사적 각주였다.⁹⁹⁾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됨을 위한 사회적 영성의 표현이었던 셈이다. 베네딕투스에 대한 해석에도 응용할 여지는 충분히 보인다.

한국의 수도원들을 방문하여 면담한 결과로는, 수도원운동이 세상으로부터의 퇴거가 아니라는 공통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비록 모든 수도원의 경우라고 보편화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봉쇄수도원을 제외한 것이기는 하지만, 퇴거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민감했다. 제주의 '클라라수도원'에서, 인터넷 뉴스를 공유하고 있으며 수도공동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이야기를 들었고¹⁰⁰⁾ '이시돌목장' 등 복지시설을 통한 활발한 섬김의 실천을 볼 수 있었다.¹⁰¹⁾

그 외에, 개신교 목사와의 면담이 과연 가능할까 싶은 마음으로 방문한 남양주의 '베네딕도회 요셉수도원'에서는 수도사의 환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¹⁰²⁾ 왜관의 '분도수도원'에서는 수도공동체가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며 베네딕투스 수도원 전통의 한국적 맥락을 소개받았다.¹⁰³⁾ 그리고 서울의 '바오로수도원'에서는 강남 도심에서 펼치는 다양한 문화사역을

97) 남성현, 『병원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기독교 영성의 역할』, 161.

98) 남성현, 같은 책, 71.

99) 남성현, “초기 비잔틴 시대(47세기)의 기독교적 빈민보호시설의 발전과 병원의 탄생,” *의사학* 제24-1(2015), 195~239.

100) '성 클라라수도원 금약성당' (*제주 제주시 한림읍)

101)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책을 참고하기를 권한다. Young-chul Yang, trans. by Noel Mackey, *ISIDORE: The Miracle of Jeju, Korea* (Seoul: Pakyoung Pub, 2017) *영어판은 필자가 제주를 방문했을 때, 이시돌목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한글판은 절판/유통중단이라고 한다.

102) '성 베네딕도회 요셉수도원' (*경기 남양주시 별내읍)

103)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경북 칠곡군 왜관읍)

볼 수 있었다.¹⁰⁴⁾ 공통적으로, 세상으로부터의 퇴거가 아니라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2) ‘제자 됨의 공동체’를 위한 종교개혁적 과제설정

공정 일변도의 해석으로 베네딕투스를 읽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수도원이 수행하는 사회적 섬김의 모습들과 함께 수도원의 문화적 기능 및 문화의 보존, 그리고 대학의 발전 등 순기능과 함께 균형을 맞추어 비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사막교부들과 베네딕투스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는 수도원 제자도에 관한 성찰에는 종교개혁에 초점을 맞춘 비판적 읽기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완덕의 추구가 ‘자기 의(self-righteousness)’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공로와 은혜 혹은 신앙의 긴장관계에 대한 종교개혁적 문제설정은 결코 생략될 수 없는 논제이자 별도의 논의가 필수적이다.

이 글의 주제인 제자도와 사회적 영성에 관해서도 비판적 성찰이 요청된다. 사실, 제자 됨에 대한 열망은 고대로부터 지속되어 왔다.¹⁰⁵⁾ 베네딕투스가 ‘수도원에 들어간 제자도’를 추구했다면, 수도원이라는 공간에 묶여 있다는 점은 ‘팩트’이다. 베네딕투스의 통찰을 일상에서 구현하기를 권하는 시도가 없지 않으나,¹⁰⁶⁾ ‘일상에서의 제자 됨’을 추구하는 ‘일상을 순례하는 수도사’에 대한 성찰도 절실하다.¹⁰⁷⁾ 클레멘스(Clemens

104) ‘성 바오로수도원’ (*서울 강북구 미아동/레벤 북카페: 강남구 논현동)

105) Mark Scandrette, *Practicing the Way of Jesus*, 이희경 역, 『예수도: 몸으로 실천하는 진짜 제자도』(서울: IVP, 2011), 19.

106) Rocks, Michael., *St. Benedict's Guide To Improving Your Work Life*, 이창훈 역, 『행복한 직장인이 되려면 베네딕토처럼 일하라』(서울: 가톨릭출판사, 2019). 가톨릭의 관점 외에 기독교의 시도는 다음 책을 참고할 수 있겠다. Jane Tomaine, *St. Benedict's Toolbox: The Nuts and Bolts of Everyday Benedictine Living* (New York, NY: Morehouse Publishing, 2015).

107) 최종원, 『수도회, 길을 묻다』, 35.

Alexandrianus)가 말한 것처럼, “도시에서도 사막에서처럼 살아야 하며 세속적인 제국의 재구성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이 필요하다.”¹⁰⁸⁾

이 부분에서, 종교개혁자들의 문제설정에 유의해야 한다. 종교 엘리트로서의 수도사들에게 세상은 떠나야 할 ‘세속’이겠지만, 종교개혁자들에게서 세상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제자 됨을 구현해야 할 ‘일상’이다. 루터와 칼뱅은 일상으로서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추구했으며,¹⁰⁹⁾ 그들에게서 제자도는 세상을 떠나 수도원에서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가정과 직장과 시민공동체에서 소명을 감당함으로써 구현해야 할 과제였다.¹¹⁰⁾ 이러한 뜻에서, 매킨타이어가 기다리는 ‘또 다른 베네딕투스’는 일상으로서의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일 가능성을 간과하면 안 된다.¹¹¹⁾ 그리고 베네딕투스를 소환한 매킨타이어에 대하여 하우어워스가 제기한 질문은 중요한 통찰력을 지닌다.

매킨타이어가 베네딕투스를 기다린다고 하면, 옛 베네딕투스와 새 베네딕투스의 차이는 무엇인가?¹¹²⁾

108) Rowan A. Greer, *Broken Lights and Mendid Lives: Theology and Common Life in the Early Church* (Pennsylvani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86), Ch. 6. “Alien Citizenship,” 140~161.

109) Alister McGrath, *Roots that refresh*, 박규태 역, 『종교개혁시대의 영성』(서울: 좋은 씨앗, 2021), 43~84.

110) John T. Pless, *Luther’s Small Catechism: A Manual for Discipleship* (Saint Louis, MO: Concordia, 2019), 169.

111) Rodney Clapp, “From Family Values to Family Virtues,” in Nancy Murphy, Bard Kallenberg, and Mark Nation, eds, *Virtues and Practices in the Christian Tradition: Christian Ethics After MacIntyre*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7), 190.

112) Stanley Hauerwas and Charles Pinches, *Christians Among the Virtues: Theological Conversations with Ancient and Modern Ethics*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7), 195. “How will the new St. Benedict differ from the old?”

아마도 하우어워스의 질문에는 교회를 제자 됨의 공동체로 제시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듯싶다. “기독교 공동체의 궁극적 역할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추어 가는 개인들을 길러내는 것”이라면,¹¹³⁾ 성품의 함양이 내러티브 안에 들어가 살기를 배워갈 때 가능하다”는¹¹⁴⁾ 하우어워스의 관점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자 됨을 위한 성품형성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지향하고 있으며 ‘예수 내러티브(Jesus narrative)’에의 충실함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상의 제자 됨을 향한 통찰로 작동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우어워스를 새로운 수도원 운동에 포함하여 읽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¹¹⁵⁾ 중요한 것은 하우어워스가 드레허의 자발적 퇴거보다는 훨씬 더 대화적이라는 사실이다. 드레허가 자발적 퇴거를 권하며 퇴거의 문제 자체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오히려, 하우어워스가 자신에게 가해지는 ‘소종파적 퇴거’의 비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퇴거의 문제를 돌파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해 보인다.

나아가, 교회가 말씀의 훈련과 예전의 본질 구현 등 ‘교회의 펀더멘탈’에 충실하기를 권하는 하우어워스의 관점¹¹⁶⁾ 대안적 영성으로서의 새로운 수도원 운동을 위하여 교회의 펀더멘탈 이외에 부가적인 실천사항들을 요청하는 것보다 실천적인 대안일 수 있겠다. 이러한 뜻에서, 제자 됨의 공동체에 관한 논의에 교회는 덕의 학교이어야 하고 제자 됨을 위한

113) Dennis L. Okholm, 『수도원에서 배우는 영성 훈련』, 62.

114) Stanley Hauerwas, *A Community of Character*, 문시영 역, 『교회됨』(성남: 북코리아, 2010), 291.

115) Carl Brook, *Bonhoeffer and the New Monasticism* (Saarbruken, Germany; Lambert Academic Publishing, 2011), 5.

116) Stanley Hauerwas and Samuel Wells, “Studying ethics through worship,” in Stanley Hauerwas and Samuel Wells, eds., *The Blackwell Companion to Christian Ethics*.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2006), 1~52.

성품함양의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하우어워스의 문제의식을 포함하여 새로운 논의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III. 나가는 말

‘렉시오 디비나’를 비롯하여 수도원 설립으로까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기독교가 수도원 영성을 동경하는 것은 공적 책임, 소통, 공감, 그리고 환대 등 사회적 영성에 대한 무관심을 부채질하는 것은 아닐까? 이 글의 문제의식은 『베네딕트 옵션』에 대한 찬반논변이 아니라 한국기독교의 윤리적 성숙에 기여할 가치를 재발견하는 데 있다. 제자됨의 윤리가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질문형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수도원으로 들어간 제자도, 사회적 영성의 퇴거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덕의 상실』에 나타난 매킨타이어의 베네딕투스 소환에 착안하여 베네딕투스의 수도원 운동을 제자됨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이 부분은 역사신학을 비롯한 기존의 읽기와는 결이 다른 것으로서, 이 글의 특색이기도 하다. 특히, 베네딕투스의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베네딕투스 규칙』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름과 본받음을 통한 제자됨의 공동체적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특별히, 베네딕투스가 혼란과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대안으로 덕의 함양을 위한 공동체에 주목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제자됨을 추구하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으로 읽어냈다. 매킨타이어의 덕 윤리와의 연관성을 따라 기독교적 지평에서 덕의 함양을 제자됨의 관점에서 재조명한 셈이다.

하나의 시론이라는 점에서 덕 윤리를 통해 베네딕투스를 읽으려는 것은 이 글의 특징이자 한계일 수 있다. 그것도 매킨타이어를 경유하여 베네딕투스를 읽어내는 과정 자체가 생경하거나 혹은 무리가 될 수 있겠다.

이러한 제한적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베네딕투스의 영성에 관한 기독교윤리학적 성찰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했다. 무엇보다도, 제자 됨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사회적 영성을 복원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자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현대의 사회적 영성은 이 부분에서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방문한 모든 손님을 그리스도처럼 영접하라'는 베네딕투스의 권면은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특별하게 영접을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 됨으로서의 환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핵심가치는 낮은 이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 나그네, 가난한 자를 비롯하여 교회가 마땅히 관심해야 할 '작은 자들에 대한 재발견 및 그들을 향한 책임적 태도를 요청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환대에 대한 해석에서, 친절함 태도의 문제를 넘어 제자 됨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의 인식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요소로서, 세상에서의 도피를 추구하기보다 세상을 위한 적극적 관심과 실천의 중요성을 보여준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네딕투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의 물러남'과 '세상 안으로'의 영성을 균형 있게 강조한다는 점이다. 세상에서의 물러남을 통해 온전한 제자 됨을 추구하고 세상으로의 복귀를 통해 진정한 사회적 영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로 읽을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베네딕투스를 긍정 일변도로 읽으려는 것은 아니다. 수도원 운동의 한계에 대한 자성은 필수적이다. 그것은 중세에 대한 비판이라는 관성적 요청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근간으로 중세를 거울삼아 성찰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무엇보다도, 한국기독교에 번지고 있는 수도원에 대한 동경이 수도원에 대한 일방적 모방과 재현으로

경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성과 연관된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분명해진 것이 있다. 한국기독교가 렉시오 디비나를 비롯한 베네딕투스의 영성 및 사막교부들의 영성에 관심하려 한다면, 그것은 제자 됨의 윤리를 위한 문제의식에서 접근하는 것이어야 한다. ‘드레허-매킨타이어-베네딕투스-수도원 혹은 사막교부들의 영성을 포함하는 경로’를 따라 수도원 동경에 귀착하기보다 매킨타이어에 대한 하우어워스의 질문에 주목하면서 교회가 ‘제자 됨의 공동체’로 설 수 있을지 성찰해야 한다는 뜻이다. 나아가, 한국기독교에 공적 책임과 소통 및 공감과 환대의 윤리에 이르는 사회적 영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인문학자들의 관심을 패러디하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제자 됨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선영, “16세기 종교개혁가들과 수도원 개혁,” 『기독교사상』(2015년 10월호), 30~39.
- 남성현, “수도적 영성과 전통이 개신교에서 지니는 의미와 가치,” 『기독교사상』 675(2015), 22~29.
- _____, “초기 비잔틴 시대(4-7세기)의 기독교적 빈민보호시설의 발전과 병원의 탄생,” 『의사학』 24-1(2015), 195~239.
- 박용진, “중세 도시의 지리적 구조와 기독교,” 『역사·사회·문화』 7(2012), 83~106.
- 박의경, “로마제국과 아우구스티누스: 기독교와 정치질서 그리고 평화,” 『세계지역 연구논총』 28-3(2010), 7~30.
- 배덕만, “한국개신교회와 수도원 운동,” 『기독교사상』(2015년 10월호), 51~60.
- 이충범, “고대교회의 금욕주의에 관한 한 연구: 은둔과 독신수행을 중심으로,” 『중세 철학』 17(2011), 38~60.
- 전광식, “Philosophos에서 Philotheos로: 헬라철학의 마지막 단계로서의 후기 고대 알렉산드리아학파의 철학정의론과 비잔틴사상에의 영향,” 『대동철학』 61(2012), 368~391.
- 전달수, “제자직에 관한 고찰: 그리스도 모방(imitatio)과 추종(sequela)의 관점에 서,” 『현대가톨릭사상』 10(1994), 29~51.
- 최덕성, “중세 기독교 망팔리페,” 『역사신학논총』 4(2002), 166~191.
- 최종원, 『중세교회사 다시 읽기』, 서울: 홍성사, 2020.
- _____, 『수도회, 길을 묻다: 제국의 가치에 저항하는 삶의 방식』, 서울: 비아토르, 2023.
- Bedwell, Luke., *Gods and Humans, What Is the Difference?: A Code of Ethics for a Medieval World*, Morrisville, NC; Lulu.com, 2016.
- Dreher, Rod., *The Benedict Option: A Strategy for Christians in a Post-Christian Nation*, 이종인 역, 『베네딕트 옵션: 탈기독교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선택』, 서울: IVP, 2019.
- Eco, Umberto., *Medioevo I: Barbari, Cristiani, Musulmani*, 김효정 외 역, 『중세

- 1: 476~1000, 야만인, 그리스도교도, 이슬람교도의 시대』, 서울: 시공사, 2015.
- Gregorius Magnus, *Vita et Miracula Venerabilis Benedicti Abbatis*, 이형우 역, 『베네딕도 전기』, 왜관: 분도출판사, 1999.
- Grun, Anselm, *Benedikt von Nursia*, 정하돈 역, 『안셀름 그윈의 베네딕도 이야기』, 왜관: 분도출판사, 2002.
- Gula, Richard M., *Call to Holiness: Embracing a Fully Christian Life*, 최성욱 역,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 서울: 바오로딸, 2015.
- Hauerwas, Stanley, and Pinches, Charles, *Christians Among the Virtues: Theological Conversations with Ancient and Modern Ethics*,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7.
- Henry, Patrick., *Benedictine Options: Learning to Live from the Sons and Daughters of Saints Benedict and Scholastica*,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2021.
- Huizinga, Johan., *Herfstij der Middeleeuwen*, 이종인 역, 『중세의 가을』, 서울: 연암서가, 2012.
- Hauerwas, Stanley, *A Community of Character*, 문시영 역, 『교회됨』, 성남: 북코리아, 2010.
- Libresco, Leah., *Building the Benedict Option: A Guide to Gathering Two or Three Together in His Namebuilding*, San Francisco, CA: Ignatius Press, 2018.
- Lilla, Mark., *The Shipwrecked Mind: On Political reaction*, 석기용 역, 『난파된 정신』, 서울: 필로소픽, 2019.
- Norris, Kathleen, and Yeo, Richard, *Wisdom from the Monastery: The Rule of St. Benedict for Everyday Life*,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2006.
- MacIntyre, Alasdair.,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4.
- _____, *Whose Justice? Which Rationality?*,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8.
- _____, *Three Rival Versions of Moral Enquiry: Encyclopaedia, Genealogy, and Tradition*,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4.
- Mortimer, Ian., *Medieval Horizons: Why the Middle Ages Matter*, New York,

NY; Vintage Publishing, 2023.

Okholm, Dennis L., *Monk Habits for Everyday People*, 『수도원에서 배우는 영성 훈련』, 서울: 규장출판사, 2022.

Rocks, Michael., *St. Benedict's Guide To Improving Your Work Life*, 이창훈 역, 『행복한 직장인이 되려면 베네딕토처럼 일하라』,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9.

Sittser, Gerald L., *Water from a Deep Well*, 신현기 역, 『영성의 깊은 샘』, 서울: IVP, 2018.

Thompson, Cameron M., *The Original Benedict Option Guidebook: Benedict of Nursia's Own Rules for Living Christian Community in a Post-Christian Society* (Montgomery, IL; Marchese Di Carabas Publisher, 2021.

Wilhoit James C., and Howard, Evan B., *Discovering Lectio Divina*, 홍병룡 역,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의 모든 것』, 서울: 아바서원, 2016.

논문투고일: 2024년 02월 16일

심사개시일: 2024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4년 04월 04일

• 국 문 초 록 •

한국기독교가 『베네딕트 읍션』을 비롯한 수도원 영성에 주목하는 것은 공적 책임, 소통, 공감, 그리고 환대 등 사회적 영성의 결여를 비난받는 정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매킨타이어를 응용하여 베네딕투스에 관한 윤리학적 재발견을 시도한다. 특히, 덕 윤리와 수도원 영성의 연결고리를 제자 됨으로 설정하여 질문을 던진다. ‘수도원에 들어간 제자도, 사회적 영성의 퇴거인가?’

매킨타이어의 ‘또 다른 베네딕투스’에 대한 기다림을 응용하여 읽어낸 베네딕투스는 위기의 시대에서 제자 됨을 추구한 ‘수도원 제자도’의 표본이다. 베네딕투스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따름과 본받음’의 제자 됨을 위한 공동체에 관심을 두었다. 로마의 도덕적 위기를 진단한 베네딕투스는 현대사회의 도덕적 위기에 주목한 매킨타이어의 데자뷰로서, 특히 ‘기독교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수도원에 들어간 제자도는 공적 책임과 소통 및 공감과 환대의 퇴거를 조장하는가? 베네딕투스는 ‘세상에서의 물러남’과 ‘세상 안으로’의 영성을 균형 있게 강조한다. 세상에서의 물러남을 통해 온전한 제자 됨을 추구하고 세상으로의 복귀를 통해 진정한 사회적 영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로 읽을 수 있겠다. 베네딕투스가 ‘환대’를 강조한 것은 사회적 영성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인문학에서 말하는 환대를 넘어 제자됨에 근거한 환대를 말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다. 수도원을 넘어, 일상에서의 제자 됨을 추구하고 현실에서 사회적 영성을 구현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가 베네딕투스의 영성 및 사막교부들의 영성에 관심하려 한다면, 수도원 동경에 귀착하기보다 교회로 하여금 일상에서의 ‘제자 됨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아가, 공적 책임과 소통 및 공감과 환대의 사회적 영성을 제자 됨에 근거하여 구현해야 한다.

주제어: 제자도, 덕 윤리, 사회적 영성, 수도원, 환대
